

# 레슬리 뉴비긴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과제들

발표자: 허성식<sup>1</sup>

### I. 들어가는 말

레슬리 뉴비긴 (Lesslie Newbigin)은 그가 쓴 여러 책들과 글들이 이미 우리 말로 많이 번역되어 소개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그렇게 낯선 인물은 아니며, 더군다나 뉴비긴은 최근 들어 국내의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들에서도 꾸준히 중요한 주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담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거론되면서, 그의 관한 관심이 국내의 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 목회자들에게까지 조금씩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뉴비긴에 대한 많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비긴은 한국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의 글을 쉽게 접근해서 읽을 수 있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글이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읽기 곤란한 이유는 아마도 그의 글들이 대부분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각 시대마다의 어떤 특정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면서, 어떤 특정한 대화의 대상을 두고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런 점에서 뉴비긴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의 글을 읽을 때 그가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선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한다.

특히 본고에서 필자는 뉴비긴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가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그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시기와 인도에서 은퇴한 다음 영국에서 사역하던 시기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뉴비긴의 신학적인

---

<sup>1</sup>한국외국어대학(B.A.), 연세대학교학대학원(M.A.), 장신대신대원 (M.Div.), 프린스턴신학교 (Th.M., Ph.D.선교학 전공), 현재, 장신대 초빙교수로 선교학 강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도 정치,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사회적으로 다원주의 사회인 인도에서 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여러 과제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했고, 인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자와 목회자로서 생활할 때에도 이미 후기기독교사회(Post-Christendom)로 접어든 영국 사회가 인도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다원주의 사회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로 탈바꿈한 서구사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라는 교회의 과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뉴비긴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종교사회적으로 볼 때 다원주의 사회인 인도에서 그가 어떻게 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과제들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인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 후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발견한 서구사회가 후기기독교 시대로 진입하면서 다원주의 사회로 변해버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직면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런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되게 만들 것인가 고민했던 뉴비긴의 고민을 통해 한국교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교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점검해보려 한다.

## II. 총체적으로 다원주의 사회인 인도에서 교회가 직면한 과제들

### 1. 복음과 함께 전해진 서구기독교회의 교파주의

인도는 서구기독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선교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이미 신약 성경의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운 후에 이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도마 교회로 알려진 아주 오래된 원시 기독교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런 오랜 기독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라는 거대한 땅은 불교와 힌두교의 발원지로서 수많은 언어와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분 차별적인 사회 제도가 뿌리 깊은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언어적으로나, 종교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히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성 도마교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서구기독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이며, 현재의 선교 사역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역했던 때는 인도의 기독교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시기였을까? 인도의 역사와 인도 교회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때는 인도가 정치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던 시기였고, 실제로 독립을 쟁취했던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인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때였다. 반대로 서구의 역사와 서구 기독교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서구의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와 더불어 서구기독교의 제국주의적인 선교 또한 빠르게 그 세력을 상실해가던 시기였다. 특히 1940년대 후반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다. 간디의 강력한 정신적인 지도력을 받으면서 모든 인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도의 독립을 성취하기 분투하고 있던 때였다. 이런 사회정치적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인도 교회, 이미 지난 수 십 년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었지만 교회연합운동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인도교회는 인도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하나되는 마당에 교회가 분열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취는 것에 대해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요청을 맞이해서 인도교회연합운동을 이끌던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은 인도교회의 연합을 위해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었다. 특히, 연합운동의 중심지였던 인도 남부의 교회들은 인도교회가 선교지 교회로서 서구기독교교회들과 선교단체들로부터 전수받았던 교파주의로 인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된 인도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뉴비긴이 남인도교회 연합운동의 핵심 지도 그룹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뉴비긴은 1936년 스코틀랜드장로교 선교사로서 인도에 파송되어 활동했었는데, 그가 남인도 교회들의 연합에 기여하게 된 것은 1943년 남인도연합교회(South India United Church)의 교회연합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교회연합을 위한 회의장에 참석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의 역할은 남인도 교회들의 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에 나선 영국 성공회교회와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는 것뿐 아니라, 연합에 참여한 모든 남 인도의 교회들에게 연합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뉴비긴은 성공회교회와의 신학적 논쟁에서 연합되는 남인도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세계 교회가 납득할만한 신학적인 주장을 펼침을 통해서 사실상 남인도교회가 탄생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중요한 방점을 찍는 일을 했다는데 있다.

남인도교회의 출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영국성공회교회를 비판하면서 벌인 뉴비긴의 신학 논쟁은 1947년 남인도교회(Church of South India-CSI)의 출범 직전 발간된 그의 책, *The Reunion of the Church: A Defense of the South India Scheme*<sup>2</sup>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뉴비긴은 성공회교회가 제안했던 “추가적인 목사 안수례”(Supplemental Ordination) 안을 거부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신학적인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책 서문에서 뉴비긴은 남인도 교회 연합을 위한 개요(the Scheme)에는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인도교회(CSI)를 그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말한다. 교회 연합 문제, 특히 남인도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영국 성공회교회에 대해 비난을 각을 세우면서, 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체시키는 스캔들을 종식시키는데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을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연합된(reunited) 교회들 가운데서 걸로 드러나는 모든 “불쌍사나운”(anomalous) 모양들에도 불구하고, 뉴비긴은 분열된 교회들이야말로 그 자체로 가장 “불쌍사나운 것”(anomaly) 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가 분열된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과정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불쌍사나운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장시간 방치하고 부식되어 생기는 흠뜨려짐(untidiness)과 새로운 성장으로 인해 나오는 흠뜨려짐 사이에는 막대한 차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남인도교회에서 나타나는 “불쌍사나운 것들”(anomalies)은 새롭게 성장하는 자락 끝에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흠뜨려진 것들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그는 교회의 역사적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파주의에 의해 촉발된 교회의 분열이야말로 정말로 불쌍사나운 것이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낸 진짜 꼴불견(scandal)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이런 분열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한다고 그는 믿는다.

뉴비긴은 1947년 저술하여 그 이듬해에 출간되었고, 1960년에 개정판이 나온 책인 *The Reunion of the Church* 이후에도 1996년에 성만찬에 관하여 쓴 글인 “Lay Presidency at the Eucharist”<sup>3</sup>에 이르기까지 여러 글들을 통해서 영국 성공회교회와 날이 선 논쟁을 계속 이어왔다. 그 논쟁의 핵심은 감독제를 교회의 본질(esse)로 보는 영국 성공회교회의 역사적 감독제에 대한 교회론 이해와 해석은 문제가 있으며, 감독제 자체를 교회의 본질에

<sup>2</sup> J.E. Lesslie Newbigin, *The Reunion of the Church: A Defence of the South India Scheme* (London: SCM Press, 1948).

<sup>3</sup> Newbigin, "Lay Presidency at the Eucharist," *Mid-Stream* 35, no. April (1996).

속한 것이라 보는 이런 교회론이 성공회교회가 다른 교회들, 특히 감독을 두지 않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뉴비긴은 거의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국 성공회교회의 교회 이해에 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해왔다. 그가 비판하는 내용, 특히 남인도교회의 출발 시점에 비판했던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4</sup>

첫째는 영국 성공회교회가 교회연합운동 세력을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하고 불경건한 교회 역사의 이단아들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뉴비긴은 영국 성공회교회가 자신의 신학적인 포용성(comprehensiveness)를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비굴할 정도로 한 울타리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잣대로 개신교 교단 교회들, 특히 감독제가 없는 교단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려는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어떤 교파적 교리에 의해서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쌍사나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뉴비긴이 비판하는 것은 역사적인 감독제를 교회의 본질로 보고 감독이 없는 교회들을 교회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국 성공회교회의 신학적 입장이다. 이런 입장조차도 영국 성공회는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로 보여오고 있다고 그는 비판한다.

세 번째로 뉴비긴이 비판하는 것은 영국 성공회교회가 교회 연합, 특히 남인도 교회의 교회 연합 문제에 있어서 보여온 일관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이다. 시류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달리 표명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영국 성공회교회와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뉴비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한다. 특히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교회의 연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뉴비긴에게 있어서 이런 영국 성공회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뉴비긴은 교회는 선교를 위해 하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도라는 선교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모든 면에서 다원주의 사회인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 교회의 분열은 그 자체가 가장 불쌍사나운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sign)이고, 열매(fruit)이며, 도구(instrument)로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청 사항이다. 복음이 교파적인 전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교회들에서만 아니라, 교회연합을 위한

---

<sup>4</sup> Seong Sik Heo, "Missional Debate: An Interpretive Study of Lesslie Newbigin's Theological Debates with Diverse Partner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3), 80-91. (필자의 미간행 박사학위)

대화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불완전하지만 회개하는 교회들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해야 한다.

## 2. 교회성장주의에 입각한 선교 정책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는 여러모로 두각을 나타내는 탁월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 인도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두 선교사가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선교사의 선교 이해, 특별히 선교 현지에서의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해가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사람 모두 선교지의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던 선교 전략가인 롤랜드 알렌 (Roland Allen)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선교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선교사란 다름아닌 레슬리 뉴비긴과 도날드 맥가브란 (Donald McGavran)이었다. 맥가브란은 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뉴비긴은 맥가브란이 시작한 교회성장학과(the Church Growth School)이 주창한 교회성장이론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sup>5</sup>

뉴비긴은 모든 나라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음을 통해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회성장학파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회복과 성장만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본질 회복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령 안에서 신비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의 성장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교회 사역은 “선교와 일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두 가지 방향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sup>6</sup> 특히 교회 일치라는 성령의 사역의 측면에서 볼 때, 뉴비긴은 교회성장학파의 교회성장이론은 교회의 일치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다.

<sup>5</sup> 윌버트 쉐크 (Wilbert Shenk)는 그의 논문에서 1950년대에 선교적 노력의 결과물로서의 교회 성장을 연구한 두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하나가 바로 1958년도와 그 후 1970년에 뉴비긴에 의해 WCC 안에서 연구되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맥가브란의 지도력 하에 교회성장연구소를 통해 연구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Wilbert Shenk, "Church Growth Studies," 8. Wilbert R. Shenk, *Explor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83).

<sup>6</sup> J.E. Lesslie Newbigin,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n the Nature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1953), 26.

뉴비긴과 맥가브란 모두 폴랜드 알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전까지 해오던 서구 선교의 방식인 “선교주둔지 중심 선교”에 대해 반대했는데, 뉴비긴은 이런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선교주둔지에 거주시키면서 따로 교육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맥가브란은 특정한 선교 지역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도록 하는 전도 운동 (people’s movement)를 통한 교회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선교지에서의 교회 성장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뉴비긴은 그 방법 자체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고 믿었고, 맥가브란은 “균질성의 원리” (homogeneous principle)을 발견하여서 이 원리대로 교회 성장을 추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교회의 성장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성장의 리더십을 인간들이 고안해낸 전략들이 아니라 성령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뉴비긴은 말한다. “종종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또는 이해하지 못했던 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로 순종하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성령님 (the living foretaste of the kingdom)의 임재로 인해 가지게 되는 소망을 실현하게 된다.”<sup>7</sup>

교회 성장 문제에 관해서 뉴비긴은 마치 군사 작전이나 종합 상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가진 자원들을 운용하고 분배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사건을 언급하면서,<sup>8</sup> 복음 증거는 “십자군 정신” (crusading spirit)을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뉴비긴은 너무나 이론에 의존하고, 숫자에 매달리는 교회성장 운동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어떤 대의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소명이 있어야만 한다.”<sup>9</sup> 교회성장 이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런 비판의 중심에는 뉴비긴이 지적하고 있는 이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과연 교회성장 이론들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성장 이론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아니면 교회성장이 중심에 있는가?”

<sup>7</sup>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65.

<sup>8</sup> *Ibid.*, 64.

<sup>9</sup> *Ibid.*, 120.

뉴비긴은 교회가 마치 수적인 성장만 되면 그 존재의 의미가 달성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교회성장 운동은 스스로 교회의 존재 목적, 곧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왜 보내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자기비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sup>10</sup> 또한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어야지,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대한 “염려” (anxiety), 또는 성공에 대한 “압박” (pressure)로 인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펠라기우스의 그림자” (the shadow of Pelagius)라고 걱정하면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지,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sup>11</sup>

뉴비긴은 복음 증거는 강제적인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기에 그는 복음 증거는 “강요하는 전도” (forcible evangelism)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중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둘째로, 그런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통해 새로운 실체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곧바로 치유와 축사의 행위가 함께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함에 대한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셋째로, 이런 새로운 실체는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치유와 축사의 행위는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2</sup> 뉴비긴은 바람직한 복음 증거를 위해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것은 교회의 크기와 중요성을 증대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이다. 둘째, 세속 사회에서 복음 증거의 단서는 지역 교회이다. 대중전도집회나 문서 선교, 미디어 선교 같은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들이다. 셋째,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양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넷째,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 이야기를 일상의 삶과 연계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다섯째, 복음 증거는 개인적인 회심만을 위해 초청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회 변화를 위해 초청하는

<sup>10</sup> Newbigin, “Does society still need the parish church?” in *.A Word in Season: Perspectives on Christian World Missio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58.

<sup>11</sup> Newbigin, “Evangelism in the Context of Secularization,” *ibid.*, 151.

<sup>12</sup> Newbigin, “Evangelism in the Context of Secularization,” *ibid.*, 152-55.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전의 기독교세계에서처럼 기독교가 지배하거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탁월함의 최고 기준이 되도록 하는 기독교 사회를 향한 소망에 대한 응답이다.<sup>13</sup>

뉴비긴은 교회성장 이론들이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진행된 강압적인 회심과 같이 강압성을 띤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면서, “맥가브란의 주장 가운데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힘의 영향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극히 힘들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sup>14</sup>라는 말로서 자신의 비판적 입장을 피력한다.

### III. 후기기독교시대 서구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 1. 교회의 급속한 세속화

남인도교회의 탄생을 몸소 겪으면서 뉴비긴은 보다 넓은 차원의 에큐메니칼 비전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은 통합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일치단결하여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61년 실제로 IMC와 WCC가 뉴델리에서 통합되는 순간, 그를 비롯한 수많은 에큐메니칼 리더들이 이제 이 꿈이 큰 어려움 없이 실현된다는 생각에 감격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 통합을 위한 논의가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실제적인 통합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합된 WCC에 대한 뉴비긴의 기대와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지기 시작한다. WCC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들이 생각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방향이 뉴비긴과 같은 이전 세대의 에큐메니칼 리더들이 추구했던 운동 방향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곧 표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했던 신구 에큐메니칼 리더들의 신학적 경향의 차이와 이로 인해 통합된 WCC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비판이 에큐메니칼 진영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IMC와 WCC의 통합에 대한 의미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뉴비긴조차도 이 통합이

<sup>13</sup> Newbigin, “Evangelism in the Context of Secularization,” *ibid.*, 155-57.

<sup>14</sup>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126-27.

결국은 최초의 비전과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스럽다고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선교 운동을 선교회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회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는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IMC를 WCC 안에 병합시켰던 것인데, 새롭게 통합된 WCC가 교회의 본래의 선교적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선교(mission)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미명하에 정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선교 사역”(missions)을 주변적인 것으로 밀어내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WCC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뉴비긴은 여러 글들을 통해 실망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도했던 IMC와 WCC의 통합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WCC 안에서 확산되어 가는 “선교를 위한 연합”(unity for mission)이라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 정신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에큐메니칼 운동 내부의 변화에 대해 뉴비긴은 비판하고 있는데, 그 주된 비판의 대상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리더십 속에 나타난 세속화 신학(secularized theology)와 이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으로 나타난 인간화 운동(humanization)이었다. 이런 새로운 흐름들을 주도하였던 새로운 에큐메니칼 리더들인 한스 호켄다이크(Hans Hoekendijk), 콘라드 레이저(Konrad Raiser), 토마스(M.M. Thomas)와 뉴비긴은 지속적인 논쟁을 벌인다.<sup>15</sup>

먼저, 1960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호켄다이크의 세속적 선교론에 대해 뉴비긴은 비판하면서, WCC 내의 선교 이해가 1950년 말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교회의 선교적인 구조”에 대한 관심에서 “세속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그 강조점이 바뀌었음을 지적한다.<sup>16</sup> 이렇게 변화된 에큐메니칼 운동을 “세속적 에큐메니즘”(secular ecumenism)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교회연합운동에는 이전과 같은 선교는 있을 자리가 없고, 그 자리에는 도시 개선, 민권 운동, 공동체 형성 등과 같은 세속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대신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sup>17</sup> 1967년 발간된 보고서인, “타자를 위한 교회”(The Church for Others)가 이런 변화의 기류를 대변하며, 그 다음해 업살라(Uppsala) WCC 총회(1968)에서는 이런 기류가 완전히 대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WCC 안에 새롭게 형성된 세속적 에큐메니즘에 대한 뉴비긴의 비판의 수위도 점점 높아진다.

<sup>15</sup> 이 논쟁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학위 논문을 참조하라. Heo, "Missional Debate: An Interpretive Study of Lesslie Newbigin's Theological Debates with Diverse Partners" 149-81.

<sup>16</sup> J.E. Lesslie Newbigin, "Recent Thinking on Christian Beliefs: VIII. Mission and Missions," *The Expository Times* 88, no. June (1977): 261.

<sup>17</sup> Ibid. "Which Way for 'Faith and Order'?", in *What Unity Implies: Six Essays after Uppsala*, ed. Reinhard Groscurth (Geneva: WCC, 1969), 117.

한편 인도의 평신도 신학자인 토마스와의 논쟁은 토마스가 교회의 선교를 “기독교 중심적” (christocentric) 혹은 “교회 중심적” (ecclesio-centric)에서 “우주 중심적” (cosmo-centric)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인간화 운동” (humanization)을 위한 투쟁을 주창하는 것에 대해 뉴비긴이 반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토마스의 책 *Salvation and Humannization* (1971)에 대한 뉴비긴의 비판적 서평을 시작된 두 사람의 지상 논쟁은 얼마나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조점이 바뀌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WCC 총무였던 라이저와의 논쟁은 그의 책, *Ecumenism in Transition*<sup>18</sup>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더 넓어진 에큐메니즘” (wider ecumenism)에 대한 뉴비긴의 비판에서 시작한다. 뉴비긴은 라이저의 에큐메니칼 신학을 “에큐메니칼 기억상실증” (ecumenical amnesia)라고 명명하면서 비판한다.<sup>19</sup> 뉴비긴은 아무리 라이저가 그의 글에서 성령과 영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 영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성령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그의 새로운 에큐메니즘 주창에 대해 반기를 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고백이 아닌 성령론적 우주론에 기초한 그의 에큐메니칼 신학은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은 세속화된 신학의 또 다른 유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한다.<sup>20</sup>

이와 같이 뉴비긴은 그가 인도라는 선교지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인 60년대 후반부터 WCC 안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세속화 신학과 인간화 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서구기독교의 세속화 현상은 서구기독교사회가 해체되고 후기기독교사회로 진입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며,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사회가 아닌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종교다원주의의 도전

후기기독교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이미 변해버린 서구사회에서 위에서 살펴본 세속화 신학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와 더불어 교회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등장이었다.

<sup>18</sup> Konrad Raiser, *Ecumenism in Transition: A Paradigm Shift in the Ecumenical Movement* (Geneva: WCC Publications, 1991).

<sup>19</sup> J.E. Lesslie Newbigin, "Review of "Ecumenism in Transition: A Paradigm Shift in the Ecumenical Movement" by Konrad Raiser," *One in Christ* 29, no. 3 (1993).

<sup>20</sup> "Reply to Konrad Raiser,"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8, no. 2 (April) (1994): 52.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보내면서 누구 못지 않게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타종교인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경험이 있었던 뉴비긴이었지만,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력 확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가로막는 엄청난 영적 도전이었다. 그래서 뉴비긴은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뉴비긴은 이미 1958년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강좌에서 이미 기독교의 타종교와의 대화란 예수가 인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다 라는 믿음 위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1960년대 들어서도 많은 글들을 통해 이런 내용을 주장을 계속했었다. 1970년대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다원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궁극성”(1972), “종교간 대화의 기초, 목적, 그리고 태도”(197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증거”(1977)와 같은 글들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경계하며 비판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종교다원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1989)와 같은 글들을 통해 존 힉(John Hick)을 비롯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논쟁을 벌였다.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논의로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이 동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궁극적 실체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들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어떤 궁극적인 실체를 향해 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통 분모를 찾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런 전제 자체를 뉴비긴은 또 하나의 믿음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전제로 본다. 무엇보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는 연관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문화의 산물로서 여러 가지 종교 경전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학자 가운데 단연 두드러진 존 힉은 성경이야기를 사실로서 해석하기보다는 “은유”(metaphor)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성경 읽기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 읽기이다. 따라서 이런 성경 해석의 결과물로 나오는 하나님 이해는 종교철학적인 분석에 따른 신 개념일 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뉴비긴은 WCC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를 행동 원칙으로 삼으려는 신학적 경향에 대해 질책하면서 그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sup>21</sup>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비긴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르면서 여러 다양한 교회들의 서로 다른 신학적 차이점들을 상대화시킴을 통해서 교회 연합을 이끌어왔던 일을 뒤집어 엮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sup>22</sup> 또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 개념을 “대화”로 축소할 뿐 아니라, 더 협의의 “종교간의 대화”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한다. 종교간의 대화는 교회의 선교 현장에서 항상 있어왔다. 하지만 이런 종교간의 대화 자체가 선교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종교간의 대화는 반드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라는 주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 3. 기독교 신앙의 사유화로 인한 교회의 공적인 역할 마비

뉴비긴이 저술 한 책들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The Gospel in the Pluralist Society*)<sup>23</sup>에서 그는 교회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가 책 속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가 인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 후 영국에 돌아와서 더 이상 기독교사회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변해버린 서구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미 다원주의 사회가 된 서구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증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로 나온 책이었다.

사실, 뉴비긴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추모하며 나온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이<sup>24</sup> 여러 가지 면에서 과문을 던지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전후로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는 영국성공회교회와의 논쟁을 통해 과문을 일으키면서 남인도교회 탄생 과정에서 신학적인 논거를 제공하였고, IMC와 WCC의 통합 과정에서는 선교 기관들의 적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교회 일치 운동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통합된 WCC가

<sup>21</sup> "The Christian Faith and the World Religions," in *Keeping the Faith: Essays to Mark the Centenary of Lux Mundi*, ed. Geoffrey Wainwrigh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337.

<sup>22</sup> Ibid.

<sup>23</sup>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eneva: WCC Publications, 1989).

<sup>24</sup> Thomas F. Foust, George R. Hunsberger, J. Andrew Kirk, and Werner Ustorf, *A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1).

원래의 비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구 교회의 선교 현장과 서구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강압적인 개종을 위한 전도와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교회성장 이론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소란을 피우는 것 같은 그의 삶의 여정으로 인해 그는 “과문을 일으키는 예언자” (scandalous prophet)라는 인상을 그의 동료들과 후대에 강력하게 심어준 것 같다.

하지만, 뉴비긴이 선교지에서 은퇴한 후 영국에 돌아와서 기독교사회의 모양만 있지 사실상 완전히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되어 있는 서구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가 후기기독교사회 안에서 공적인 교회의 역할을 점차 포기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사유화되고, 일반 사회와는 별로 상관없는 종교 집단이 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의 주변부로 밀리고, 계도화되어 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 1976년 저술한 “로마서 8장에 관한 성경공부”<sup>25</sup>라는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남은 여생 내내 뉴비긴은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관한 주제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였다. 로마서 8장 주석에서 뉴비긴은 교회는 처음부터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했음을 역설하면서, “교회는 처음부터 인류의 공적인 삶 속으로 던져졌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공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공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라고 해석한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십 년이 넘었을 때 그는 버밍햄의 작은 다민족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 신앙” (1985)<sup>26</sup>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 속에서 그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검증되지 않는 가정들에 대해 대응하려는 것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적인 영역 속에 모셔다가 사소한 역할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문화 속에서 몇대로 이용해 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서구사회 안에 팽배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에 대해서 교회를 사적인 영역, 개인의 취향 정도로 여기려는 도전에 대해 대응해야 함을 주장했다. 1988년 쓴 “학교교과 안의 종교, 과학, 그리고 진리”<sup>27</sup>라는 글에서 공립학교에서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가르치는 것의 정당함에 대해 주장했으며, 1990년 쓴 “자유 사회”<sup>28</sup>라는 글에서는 지난 2백년의 유럽

<sup>25</sup> J.E. Lesslie Newbigin, "Bible Study on Romans 8," (1976).

<sup>26</sup> "Christian Faith in a Secularized World.," (1985).

<sup>27</sup> "Religion, Science and Truth in the School Curriculum," *Theology* 91, no. May (1988).

<sup>28</sup> "The Free Society," *The Gospel and Our Culture (U.K.)* 5, no. Spring (1990).

역사 가운데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형성하고 양육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에, 앞으로도 이런 자유로운 사회를 유럽에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유럽 사회 속에서 주장하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1991년 쓴 “다원주의와 교회”<sup>29</sup>라는 글에서 그는 “우리가 복음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진리로 확증하면서 그와 함께 연관되어 따라오는 위기들을 감수할 때,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바를 충분히 배우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공적인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선포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위험들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1992년 스완윅(Swanwick)에서 “복음과 문화 운동”의 중심 학자들이 모였을 때, 그는 “공적인 진리로서의 복음: 스완윅 개회 성명서”<sup>30</sup>를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교회는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전해야 하는데, “담대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비긴은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선포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확증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를 위해 세상적 권력을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1998년 M.M. 토마스를 추모하는 책인 *Christian Witness in Society: A Tribute to M. M. Thomas*에 기고한 “현대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뉴비긴은 다시 한번 정치, 경제, 문화, 정부 등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는 기독교 복음이 공적인 진리로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을 역설했다.<sup>31</sup>

하지만, 아쉽게도 같은 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위해 논쟁했던 주제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몸 담았었고, 초대 총회장으로 섬긴 방 있었던 영국 연합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에서 불거진 동성애 목회자 안수 문제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sup>32</sup> 그는 동성애목사 안수를 찬성하는 교단 내 다수 세력을 형성하는 그룹으로부터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으로 비난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연합개혁교회 시작의 산 증인이며, 복음 증거라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을 평생

<sup>29</sup> "Pluralism and the Church," (1991).

<sup>30</sup> *The Gospel as Public Truth: Swanwick Opening Statement* (1992).

<sup>31</sup> "Can a Modern Society Be Christian?," in *Christian Witness in Society: A Tribute to M. M. Thomas*, ed. K. C. Abraham (Bangalore: Board of Theological Education, Senate of Serampore College, 1998).

<sup>32</sup> Geoffrey Wainwright,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05.

외쳤던 뉴비긴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항의 편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누구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평생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뉴비긴이었지만 서구사회의 세속화되고 도덕적 상대주의가 지배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대세가 되는 다원주의 사회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21 세기 들어 우리는 더욱 더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더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서구기독교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서구기독교회의 최근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20 세기 마지막까지 교회의 공적인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외쳤던 뉴비긴은 서구 사회, 아니 서구기독교회 안에서조차 파문을 일으키는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 IV. 맺는 말

후기기독교사회에 들어선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대부분의 선교 현장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원주의 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선교의 현장은 서구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의 경험이 있는 지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서구의 영향을 받아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본질적으로 다원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모든 나라들이 점점 더 다원화되는 사회가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원주의 사회란 후기기독교시대로 접어든 서구사회만이 아니라, 비서구권 사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다면, 뉴비긴이 인도라는 독특한 비서구권 사회에서 경험했던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나, 서구사회에서 경험했던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각각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기보다는, 현재 복음이 전파되는 대부분의 사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 모두 다원주의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문제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기독교의 교파주의, 교회 성장 위주의 선교 정책, 교회의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공성 상실과 같은 문제들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는 선교 지역에서 출발했다. 한국교회의 토양은 인도처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다원주의 사회였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다. 해방 이전에도 한국교회에 찾아온 부흥은 평양이 제 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감탄할 정도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거치고 현대사의 여러 가지 굴곡을 지나오면서도 한국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어느덧 한국사회가 이제 “기독교사회”로 들어서는데 이것이 아닌가 하는 흥분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모여있고,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고 세계에서 아마 신학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도 한국일 것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같은 기독교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같은 신호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금세기 들어서 급속하게 후기기독교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선교지로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사회로 변화되는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서 뉴비긴의 삶을 통해 배울 것이 많은 것 같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다원주의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성장이라는 문제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서구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인 세속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복음 증거 능력 상실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뉴비긴이 치열하게 씨름했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차례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 참고 문헌

- Foust, Thomas F., George R. Hunsberger, J. Andrew Kirk, and Werner Ustorf. *A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1.
- Heo, Seong Sik. "Missional Debate: An Interpretive Study of Lesslie Newbigin's Theological Debates with Diverse Partners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3.
- Newbigin, J.E. Lesslie. "Bible Study on Romans 8." 1976.
- . "Can a Modern Society Be Christian?". In *Christian Witness in Society: A Tribute to M. M. Thomas*, edited by K. C. Abraham. Bangalore: Board of Theological Education, Senate of Serampore College, 1998.
- . "The Christian Faith and the World Religions." In *Keeping the Faith: Essays to Mark the Centenary of Lux Mundi*, edited by Geoffrey Wainwright, 310-40.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 "Christian Faith in a Secularized World.", 1985.
- . "The Free Society." *The Gospel and Our Culture (U.K.)* 5, no. Spring (1990): 1-2.
- . *The Gospel as Public Truth: Swanwick Opening Statement*. 1992.
- .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eneva: WCC Publications, 1989.
- .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n the Nature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1953.
- . "Lay Presidency at the Eucharist." *Mid-Stream* 35, no. April (1996): 177-82.
- .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 . "Pluralism and the Church." 1991.
- . "Recent Thinking on Christian Beliefs: Viii. Mission and Missions." *The Expository Times* 88, no. June (1977): 260-64.
- . "Religion, Science and Truth in the School Curriculum." *Theology* 91, no. May (1988): 186-93.
- . "Reply to Konrad Raiser."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8, no. 2 (April) (1994): 51-52.
- . *The Reunion of the Church: A Defence of the South India Scheme*. London: SCM Press, 1948.
- . "Review of "Ecumenism in Transition: A Paradigm Shift in the Ecumenical Movement" by Konrad Raiser." *One in Christ* 29, no. 3 (1993): 269-75.
- . "Which Way for 'Faith and Order'?" In *What Unity Implies: Six Essays after Uppsala*, edited by Reinhard Groscurth, 115-32. Geneva: WCC, 1969.
- . *A Word in Season: Perspectives on Christian World Missio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 Raiser, Konrad. *Ecumenism in Transition: A Paradigm Shift in the Ecumenical Movement*. Geneva: WCC Publications, 1991.
- Shenk, Wilbert R. *Explor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83.
- Wainwright, Geoffrey.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허성식 교수의 “레슬리 뉴비긴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과제들” 에 대한 논찬

정중호 (계명대)

발표자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레슬리 뉴비긴 (Lesslie Newbigin)의 삶과 주장을 고찰하였다. 발표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뉴비긴에 관해 작성한 바 있기에 이미 깊은 연구가 있었고 그 바탕 위에 본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뉴비긴이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그리고 귀국 후 후기기독교사회 (Post-Christendom)로 접어든 영국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기독교의 교파주의, 2) 교회 성장 위주의 선교 정책, 3) 교회의 세속화, 4) 종교다원주의, 5) 교회의 공공성 상실. 현재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들이기에 더욱 관심이 가는 발표 내용이었다.

이처럼 발표자는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논찬자로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1) 뉴비긴이 활동한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겠는데. 아쉬운 점은 발표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한국 교회에도 다원주의 사회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혹시 해결방안이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다.

2)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간 대화가 필요해진다. 과연 종교간 대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타종교인인 상대방도 선교 위주의 대화 방식을 대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세속화는 반대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회 중심적에서 우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한다면 세속화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의 방향이 비슷해지는 듯하다.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4) 교파주의와 교회 성장 위주의 선교 정책은 다원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이 왜 다원주의 사회와 특별히 연관이 되는지?

위와 같은 질문들은 어쩌면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당면한, 기독교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토론을 위해서 제시한 것들이다.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